

## 진일보

진일보는 전남일보가 제공하는 온라인 뉴스서비스입니다.  
많은 의견과 제보를 바랍니다.

## ‘호남고속도로 확장 재추진’ 시민 생각은?



호남고속도로 확장  
6분 단축에 4000억?

광주시가 반대 입장을 보였던 호남고속도로 확장 사업을 결국 추진한다. 동광주 IC~광산IC 11.2km 구간을 기존 4차로에서 6~8차로로 확장하고 용봉IC 신설해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되는 이번 사업은 국비 50%, 시비 50% 등 약 8000억원이 투입되지만, 예상 시간 단축은 6분30초에 불과해 재정 부담 대비 실효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광주시는 현재 재정 건전성 우려가 큰 상황으로, 올해 추경 예산의 65%가 지방채로 구성돼 있다는 점도 부담을 키우고 있다. 광주시는 사업 초기 반대 기조에서 최근 시민토론회 후 시비 400억원을 우선 편성하는 것으로 입장을 바꿨는데, 일각에서는 내년 지방선거 의식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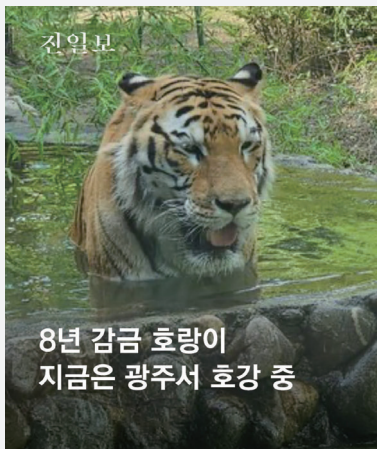
##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최대 6억 ‘영끌 막는다’



“이제 영끌 금지”  
초강력 대출규제 총정리

정부가 주택담보대출 한도 제한 등 ‘역대급’ 대출 규제 카드를 꺼냈다. 지난달 28일부터 수도권과 규제지역을 중심으로 본격 시행됐으며 은행권도 비대면 대출을 줄줄이 중단하고 있다. 소득·집값과 상관없이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최대 6억 원으로 줄었다. 이는 서울 아파트 평균값 13억원의 절반 수준으로, 수십억원대 집 구매를 위한 ‘영끌족’ 차단이 주목적이다. 만기는 40년에서 30년으로 축소됐으며 규제지역 내 2주택자 이상은 신규 구매 시 대출이 불가하다. LTV(집값 대비 대출 가능 비율)는 80%에서 70%로 축소됐다. 다주택·고소득층의 영끌투자를 막는 효과는 있겠지만, 처음 집을 사는 청년·무주택자도 대출 막히는 역차별 논란이 커지고 있다.

## 광주서 잘 적응 중인 뱀갈호랑이 ‘호광이’



8년 감금 호랑이  
지금은 광주서 호강 중

햇살 한 줄기 달지 않던 곳에 갇혀 지내던 뱀갈호랑이 ‘호광이’가 호남권 거점 동물원으로 지정된 광주 우치동물원에서 새 삶을 시작했다. 호광이는 경기도 부천의 한 실내동물원에서 8년간 어두운 콘크리트 방사장에 갇혀 지냈다. 같은 동물을 반복하는 등 심각한 스트레스 증상을 보였으며 오랜 실내 생활로 담즙 정체, 발바닥 상처 등도 심각했다. 광주 우치동물원의 구조로 지난 4월 광주로 이송된 호광이는 풀밭, 계곡형 풀장, 햇살이 가득한 야외 방사장에서 지내며 빠르게 적응 중이다. 실내에 먹이가 있어도 나갈 만큼 바깥을 좋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름 호광이에는 ‘호랑이+광주+호강하리’라는 뜻이 담겼다.

## 8월, 싸이·세븐틴 광주 온다



싸이랑 세븐틴  
여름 광주 적시러 옵니다

8월 광주가 무더위를 날릴 축제 도시로 변신한다. 싸이의 ‘흠뻑쇼’는 물론 세븐틴 호시X우지의 데뷔 13년 만 광주 첫 단독 무대가 펼쳐질 예정이다. 티켓팅 경쟁도 치열한 것으로 보인다. 먼저 싸이 ‘흠뻑쇼’ 광주는 오는 8월23일과 24일 조선대 종합운동장에서 펼쳐진다. NOL 티켓서 예매할 수 있다. 지난해 5년 만에 광주를 찾았던 싸이가 올해도 매진 신화를 이어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세븐틴 호시X우지의 ‘WARNING’ 광주 역시 오는 8월23일과 24일 광주여대 유니버시아드 체육관에서 진행된다. 인터파크 티켓에서 예매할 수 있으며 멤버십 선예매는 4일 오후 8시부터, 일반 예매는 오는 7일 오후 8시부터 가능하다.

## 박현일의 색채 인문학 301 주황색과 자연

## “주황빛은 일할 의욕 촉진”

## ●색채와 곤충 그리고 어류

헤스(Hess)는 물고기에 대해 다음과 같이 연구했는데, 초록이 물고기들의 눈에 가장 밝게 보이는 색이고, 그 다음의 색으로는 파랑과 노랑 그리고 주황의 순서이며, 빨강이 가장 어렵게 보인다.

뉴톨(Nuttall, G. H.)은 쉬프리(Shipley, A. E.)와 함께 학질모기에 대해 다음과 같이 연구했는데, 유럽에 흔히 있는 학질모기는 짙은 파랑과 빨강 그리고 갈색에 가장 많이 끌고, 노랑이나 주황 그리고 하양에 가장 적게 끈다.

그래서 미군은 이 보고서에 따라 학질이 흔한 지역에서 정복을 폐기하고 밝은색 옷으로 대체했다.

거북이의 색 지각에 대해 가장 중요한 색으로는 주황과 초록 그리고 보라가 있다. 노랑색과 연두색은 정확히 구분되지 않은 한 주황색처럼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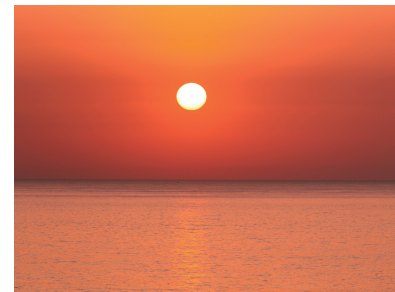
## ●색채와 동물

와그너(Wagner)는 도마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도마뱀은 빨강, 주황, 노랑, 연두, 연한 파랑, 짙은 파랑, 보라를 구분하였다.

## ●색과 자연계

퍼거슨(Fergusson, James)은 고대 바빌로니아인들이 사용하던 진흙으로 만든 인장, 상형 문자가 새겨진 원통형 인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독하였다. 이 사원의 각 층은 7개의 색상으로 되어있다. 각각의 층은 각 색상의 색으로 장식되었고, 풍부한 장식이 새겨져 있다. 주황으로 된 2층은 목성의 색이다.

지역에 따라 태양 빛은 조도가 다르므로 아름답게 보이는 색도 다르다. 적도를 중심으로 한 열대지방의 태양 빛은 빨간색, 주황색, 노랑색을 띤다. 적도 근처의 나라에서는 명도와 채도가 높은 난색이 예쁘게 보이므로 좋아



하는 경우가 있으며, 그곳의 사람들은 빨강을 인지하는 빨간 시세포가 발달해 있다고 한다.

태양광선의 지속시간과 각도(duration and degree of sunlight)에 의해서 색채 기호가 영향을 받는다는 학설이다. 사람들은 지역의 일광양에 따라 색채 선호가 달라진다. 햇빛이 잘 쬐는 지역에서는 선명하고 화사한 색채를 즐기며, 주로 난색 계열(warm color)을 좋아한다.

사람들은 북위지방(北緯地方, northern latitudes)과 남위지방(南緯地方, southern latitudes)에 관계없이 태양광선이 풍부하면 난색 계열의 색채를 좋아한다.

태양광선의 시간을 중심으로 연구한 학자들은 비렌(Birren)과 헤르너(Helmer)가 있다. 색채 기호는 천후(天候)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고 주장한 비렌, 국민과 환경 및 기후에 영향을 받는다고 주장한 볼드윈(Baldwin)과 니벨(Niebel), <지역 설>을 신봉하는 윌슨(Wilson)이 속한다.

초원지(草原地, 코카서스 지방)에서는 약간 맑은 중간색으로 노랑, 주황, 초록, 하양이 나타난다. 모래 지역(砂地, 아라비아, 몽고, 이집트)에서는 밝고 따뜻한 색으로 노랑, 빨강, 주황이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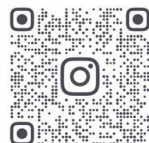
주황빛은 생리작용을 활발하게 하므로 일할 의욕이 생긴다.



문화예술 기획자/ 철학박사·미학전공

더 많은 콘텐츠를 보시려면 인스타그램에서 **진일보**를 검색하세요

<https://www.instagram.com/jnilbo>  
Kakao Talk : 진일보  
E-Mail : jebo@jnilbo.com



보약·홍삼은

40년 오직 한 길!

북교당 한약방

6년근 홍삼 100% 60포 ▶▶ 15만원 (주문판매)

홍삼 검사품 생산지 직거래로 저렴합니다 농협 653-1200-3100 (예금주 박주환)

미세먼지 예방  
(기관지 보호)

도라지 오미자 삼백초 한 박스 50포 ▶ 5만원

무릎 관리 활기찬 삶! 산수유 두충 60포 ▶ 12만원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776-12 (광주새우리병원 건너편 2층) 062)369-9227